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0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7일 (음력 4월 3일) 화요일

## 5·18 앞두고 민주묘지 참배객 '성시' 추모 고조

### 영령 기리기 발걸 이어져...속연한 표정 열사들 안타까운 사연 눈시울 붉히기도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2주 가량 앞둔 6일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에 5월 영령을 기리기 위한 추모객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자녀의 손을 잡고 함께 온 부모, 다큐멘터리 영상을 촬영하는 대학생, 노부부 등이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묘역 곳곳을 둘러봤다.

민주의 문 앞에 들어선 참배객들은 민주광장을 거쳐 추모탑까지 숙연한 표정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참배객들은 추모탑 앞에서 현화·분향하며 5월 영령들의 송고한 넋을 기렸다.

윤상원·박기순 열사 묘비 앞에서 묘비에 적힌 글을 읽으며 열사의 삶을 되새기거나 말없이 묵념하는 참배객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한 부모는 어린 자녀에게 불의에 맞서 싸우다 숨진 열사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참배객들은 유영봉안소에서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열사들의 삶을 기억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묘역 내 유가족 합터에 마련한 사진전을 지켜보며 체험군의 진행에 분노하는 어린이도 눈에 띄었다.

참배객들은 방명록에 가족과 함께 이 정신을 받을게요' 자유와 민주를 위해 흘린 피를 잊지 않겠습니다' 등의 글을 남겼다.

프랑스 파리 마르리벨레 대학과 부산 동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식을 2주 앞둔 6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 참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의대학교 학생 10여명은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한 웹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묘지 내 추모시설 곳곳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지도교수 에릭 마이에(61·프랑스)는 '5·18민주화운동은 아직까지도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 현재진행형인만큼 한국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라고 생각, 기획을 시작했다'면서 '국가권력에 맞서 싸운 이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슬프다. 이번 웹 다큐를 통

해 프랑스인들에게도 5·18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녀·조카와 함께 묘지를 찾은 선봉인(46·여·광주 남구)씨는 '매년 5월이 되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몸 바쳐 싸운 열사들의 삶을 떠올린다. 아이들에게도 자유롭게 민주적인 오늘이 40년 전 열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늘 알려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편과 함께 추모탑 앞에서 묵념을 하던

이성란(60·여·부산)씨는 '자기 몸을 바쳐 신군부의 폭압과 불의에 맞서 싸우다가 진 이들을 생각하면 가슴 아프다. 모든 정치인들이 정파적 이해에서 벗어나,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을 잊지 말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뜻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5·18민주묘지에는 이날 1일부터 5일까지 1만7496명이 다녀갔다. 지난달 누적 참배객 수는 2만19489명이었다.

신봉우 기자



### 한 뿌리

정동영 민주당 대표는 4일(현지시간) '북핵 문제 해결에 대화와 협화가 아닌 플랜 B는 있을 수 없다'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호주 시드니 스티븐스필드 골프 클럽 연회장에서 호주 교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광양 등라도 경기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고 김정은 위원장과 약속했다고 한 연설에 15만 평양 시민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장면에서 전율을 느꼈다. 역사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싶었다고 소회도 밝혔다. 정 대표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남북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 기자 · 자료사진=뉴시스



정동영



문재인



박지원

## 광주시, 오는 11일 무등산 정상 올해 첫 개방

### 군부대 후문~지왕봉~인왕봉 0.9km 국립공원사무소 탐방 예약제 실시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의 비경과 철쭉이 장관을 이루는 오는 11일 올해 처음으로 무등산 정상을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무등산 정상 개방 구간은 서석대 주상절리에서 군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내 지왕봉과 인왕봉을 관망하고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이다. 개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정상 개방에 앞서 광주시는 지난 달 군

부대, 국립공원사무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산악연맹 등 15개 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탐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정상 개방 구간에 대한 탐방 예약제를 시행한다. 인터넷 사전예약은 국립공원통합예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현장접수도 추가로 진행해 탐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상부 예약제를 이용하는 탐방객과 현장 접수자에게는 손목 띠를 제공한다. 정상부 탐방을 위해서는 목교와 장물대에서 신분증, 손목 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등산 정상은 군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평소에는 방문하지 못한다"며 "안전사고 없이 정상 개방이 마무리되도록 탐방객들이 협조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무등산 정상은 1966년 군부대가 주둔한 이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으로 2011년 첫 개방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22차례 개방해 42만5000여 명이 아름다운 비경을 관망했다.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가진

# 광주 상설 국악 한마당

일 시 2019. 3월 ~ (매주 토요일 17:00)

장 소 광주 공연마루(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시민로 3)

내 용 시민과 함께 어울려 즐기는 전통, 퓨전 등 다양한 국악공연

문 의 광주문화예술회관 (062-613-8351, 062-613-3181)  
※ 관람료 무료


